



■ 세계의 문명 감각의 전환 : 지구적 세계문학과 지구적 혁명 — ‘제2회 인천AALA문학포럼’ 이 부여한 행복한 과제

고 명 철

‘지구적 세계문학’이란 말이 인천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인천AALA문학포럼’ (4월 28~30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에 초대받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작가들은 주최측이 표방한 캐치프레이즈(평화를 위한 상상력의 연대)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서로 다른 글쓰기의 환경에서 자신의 독특한 글쓰기를 해 온 작가들은 모종의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묵인할 수밖에 없던 구미 중심주의 세계문학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기존 자연스레 수용하여 자신도 모르는 새 내면화된 구미 중심주의 세계문학의 이념과 그 구체적 실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과연, 오랫동안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그래서 아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문제를 제기할 필요를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그것에 대해 그 어떠한 의심도 가져보지 않아 너무나 자명한 것처럼 간주한 ‘세계문학’이, 기실 ‘구미 중심주의적 세계문학’이었다는 데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이번 문학포럼의 집행위원장인 김재용 문학평론가는 말한다. “지구적 세계문학은 어디에도 없는 말이다. 우리가 만든 말이다. ‘인천알라문학포럼’이 전 지구적으로 작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표



인천AALA문학포럼 개막식

방한 대로 유럽 중심주의적인 세계문학을 극복하고 지구적인 세계문학이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지구적 세계문학’은 아직 시민권을 확보한 용어는 아니되, 분명한 것은 그동안 자명한 것으로 인식된 ‘세계문학’을 에워싼 이념과 실재가 말 그대로 지구 전체를 사무사(思無邪)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지구의 북반구, 그것도 유럽과 미국의 문학적 성취에 국한된 용어라는 사실이다. 물론 마지못해 (흔히들 노벨문학상이란 제도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서 거둔 문학적 성취 중 극히 부분적인 것을 공여지책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세계문학’의 틀 안에 가둬 놓는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구미 중심의 미의식을 치장하기 위해 들러리를 서는 정도라고 할까. 아니면, 구미 중심의 미의식으로 모두 포괄할 수 없는 약간의 기이한 미의식을 어느 정도 포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할까. 사실 여기에는 구미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박물학의 이데올로기가 작동되고 있는 셈이다. 구미 제국은 자신의 건장한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 세계 곳곳에 있는 희귀한 것을 닥치는 대로 수집하여 제국의 시민들에게 전시의 형식으로 제공했다. 제국의 시민들은 전시된 수집품을 보면서



왼쪽부터 원광대 국문과 김재용 교수, 인도 평론가 마카란드 파란자페, 멕시코 평론가 라파엘 올레아 프랑코

문명적 혹은 인종적 우월감을 만끽한다.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저 미개하고 야만스런 세계를 계몽할 수 있는 근대적 주체라고 자기최면을 건다. 이제 제국의 시민들이 사는 세계가 ‘세계’ 이지, 박물관에 전시품을 제공해 주고 있는 제국 바깥의 타자들이 있는 세계는 ‘세계’ 가 아니다. 다만 그 타자들이 제국의 시선에 의해 포착될 때만 비로소 ‘세계’ 를 구성한다.

이번 ‘인천알라문학포럼’ 은 작년에 이어 기존 구미 중심주의 세계문학이 지닌 크고 작은 문제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성찰했다. 그중 몇 가지 인상적인 풍경들이 있다. 아프리카 작가 누르딘 파라와 한국의 젊은 비평가들이 그의 장편소설 『지도』(Maps, 1986)를 갖고 심층적 대화를 나눴다. 중요한 화두는 이른바 ‘응시’ (gaze)의 미학이었다. 소말리아 태생의 누르딘 파라는 자신의 고향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주요한 작중 인물로 하여금 시종일관 주체를 포함한 대지에 살고 있는 못 존재를 ‘응시’ 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응시’ 를 구미의 합리적 이성의 ‘시선’ (see)과 착종해서는 곤란하다. 이 ‘응시’ 에 대해 작가는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시간성과 역사성을 함축한 직관” 으로 파악한다. 이것은 존재를 분석 가능한 대상으로 나눠 인식의 유무에 따라 진리를 탐구하는 분별지(分別智)와 구분된다. 특히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명확한 구별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와 구분된다. 더욱이 계산가능성과 유용가능성의 합리적 준거들을 갖고 세계를 파악하는 것과 구분된다. ‘응시’ 는 어떻게 보면, 서구가 발견하여 맹신하고 있는 합리적 이성의 문제들과 전혀 다른 진리 탐



아프리카 작가 누르딘 파라

구의 방법이자 태도이며, 그러한 차원에서 동시에 세계의 미를 탐구한다. 그리고 보니, 지난해 영화 〈아바타〉(제임스 카메론 감독)가 절찬리에 상영됐는데, 그 영화에서 나비족 여전사는 자신의 종족을 찾아온 지구인 아바타와 친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말을 내뱉는다.

“I SEE.” 이는 “나는 안다”

혹은 “나는 이해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 비록 영화에서는 이 말이 소통의 진정성을 염두에 둔 귀중한 전언으로 부각되지만, 이 역시 엄밀히 따져 보면, 여기서 소통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조화를 이뤘을 때 가능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소통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해,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분별지’를 말한다. 즉 여기에는 ‘합리적 얹’이 작동하고 있다.

우리는 인류의 숭한 비극적 참사를 잘 알고 있다. 히틀러에 의해 발가벗겨진 알몸으로 가스실에 들어간 채 대량학살당한 죽음, 독재자를 개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숙청당한 죽음, 냉전시대의 정치적 이념의 대립 갈등으로 희생당한 숭한 죽음, 근대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다지는 과정에서 국가폭력의 과잉으로 저질러진 무고한 양민들의 죽음, 종교적·인종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배타적 관계에 의해 벼랑 끝에 내몰린 죽음,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억지로 분쟁을 조장하는 가운데 스러져간 숭한 죽음, 문명이란 이름 아래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비서구를 향한 죽음……. 그것을 아는가. 지구상에 일어난 전대미문의 죽음들은 모두 ‘합리적 얹’이란 외피를 두르고 있다. ‘합리적 얹’이란 탈을 쓴 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야 했는가. ‘합리적 얹’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들은 몽땅 제거되어야 할 악(惡)과 다름바 없었다.

아프리카의 작가 누르딘 파라는 우리에게 소중한 전언을 들려준다. 이 세계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속이 ‘응시’하는 게 훨씬 값지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존재들의 가치를 넓고 깊게 포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그 힘은 평화를 일궈 내는 자양분이니, 어찌면 그것이 ‘응시’의 권능을 갖

는 것일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아프리카의 작가 누르딘 파라로부터 얻은 성찰은 문득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의 눈을 떠올린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겠다’고 일갈하던 체 게바라는 볼리비아의 정부군에게 잡히던 순간 배낭 속에 지도와 비망록 그리고 녹색의 표지를 두른 노트 한 권이 있었다고 한다. 최근 그 노트의 정체가 드러났다. 노트에는 69편의 시가 적혀 있었다. 체 게바라가 좋아한 네 명의 라틴아메리카 시인들(파블로 네루다, 세사르 바예호, 니콜라스 기옌, 레온 펠리페)의 시였다. 혁명가 체 게바라는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터에서도 이들 라틴아메리카의 빼어난 시인의 시를 녹색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는 시를 옮겨 적으면서, 아마도 ‘응시’하고 있었을 터다. 가령, 네루다가 쓴 「프라이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의 다음 부분을 한 자 한 자 베껴 쓰면서, 그는 무엇을 ‘응시’하고 있었을까.

나무에게도 당신 그림자 같은 그림자는 없지요/그 위에 대륙의 살아 있는 불덩이가/
그 그림자를 향해 달리죠/사지가 잘려진 상처, 몰살돼 버린 마을,/모든 것들은 다시금
당신이 그림자로 태어나죠/당신은 고통의 경계에서 희망을 쌓지요//

신부님, 당신의 존재는 그들에겐 행운이었지요/플랜테이션 농장에서/죄악의 검은 곡
식들을 씹으며/분노의 잔을 매일 마신 것/누가 발가벗고 당신을/분노의 이빨 사이로 밀
어 넣었나요?/당신이 탄생하였을 때/칼을 든 다른 눈들이 어떻게 들여다보던가요?

— 네루다의 「프라이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 부분

체 게바라는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성과 현재의 자화상을 겹쳐 놓았을 것이다. 스페인의 군대가 신대륙을 경영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반인간적 야수와 같은 행위들이 만연했는지 모른다. 스페인의 군대는 자신들만이 문명이며, 라틴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미개이고, 그래서 그들을 인간으로서 인식하지 않았다. 이 반문명적 행위를 직접 보고 들은 라스카사스 신부는 스페인 군대의 야수와 같은 만행을 고발한다. 시인 네루다는 바로 이러한 라틴아메리카의 비극성과 연루된 라스카사스 신부를 노래했고, 그 시를 혁명가 체 게바라는 그의 녹색 노트에 옮겨 적었다. 그렇다면 라스카사스 신부가 직접 목도한 스페인 군대의 반인간적 행위는 어떠했을까. 라스카사스 신부가 사실적으로 기

록한 『인디아의 파괴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1542)의 한 대목을 보자.

그때 그들이 왔다! 인디오들은 그들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로 여겼다. [...] 하지만 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남녀 상관 않고 귀, 손, 코를 잘랐다. 단지 재미로 그랬던 것이다. 그 후 난 그들이 어떻게 쉽게 인디오들을 잡아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다. 그들은 추장들을 소집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며 거짓 말을 하고는, 막상 그들이 평화롭게 찾아오면 잡아다가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이었다. [...] 스페인 사람들은 또 어머니의 가슴에서 젖먹이들을 떼 내, 공처럼 발로 차고 바윗덩어리에다 머리를 박아 버렸다. [...] 그들은 긴 교수대를 만들곤 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발가락 끝이 땅에 닿을 정도로 목을 매달았다. 그러고선 열두 제자와 예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한꺼번에 13명의 인디오들을 매달아 산 채로 태워 죽였다.

이 외에도 스페인 군대가 인디오를 대상으로 자행한 광기의 살상 행위는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라스카사스-네루다-체 게바라’는 뼈저리게 아팠을 것이다. 아니, 너무 아파 아픔의 감각도 마비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졌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스페인 군대—엄밀히 말해, 스페인 군대를 원격조종하는 유럽 중심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인간 이하의 하등 존재로 간주하여 무참히 짐승처럼 죽여야만 했는가. 대관절 유럽인이 믿는 신이 이것을 허락했던 말인가. 만유존재(萬有存在)를 향한 하염없는 사랑을 베푸는 신이 어찌하여 유럽을 제외한 곳에 살고 있는 존재에게는 이토록 불평등한 공포의 실체로 다가온단 말인가. 때문에 ‘라스카사스-네루다-체 게바라’는 분노했을 것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네루다와 체 게바라는 그들의 대지가 유럽인에 의해 유린된 역사를 ‘응시’ 했다.

이 ‘응시’는 망각을 강요하는 일체에 대한 것과의 투쟁이다. 그러면서 이후 도래할 세계를 내다보도록 하는 희망이다. 이번 ‘인천알라문학포럼’에서 작가들은 틀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었다. 각자가 발 딛고 있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순에 대해, 그리고 그 모순의 복판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무하고, 더 나아가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언어를 모색하는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 초청된 작가들 중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페미니스트 작가로 정평이 난 루



인천 AALA문학포럼에서 핸드프린팅을 하고 있는 루이사 발렌수엘라

이사 발렌수엘라는 “글을 쓴다는 것은 금지된 얇으로 우리를 더욱 더 깊이 인도하는 기묘한 여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 태생의 젊은 여성 작가 레이나 그란데는 “글 쓰는 일이 내게 생존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진솔한 자기고백을 통해 ‘응시’의 미학을 나름대로 구현하고 있다. 때마침 발렌수엘라의 작품이 묶인 『침대에서 바라본 아르헨티나』(2010)가 번역되면서 그의

글쓰기 매력을 만끽할 수 있어 다행이다. 발렌수엘라의 언어는 중층적으로 뒤엉킨 아르헨티나의 현실을 탐구해 내고 있다. 간혹 보이는 몽환적 언어와 작품 전체에 짙게 드리우고 있는 메타포의 언어는 작가가 그의 조국의 현실을 왜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되문도록 한다. 마치 아르헨티나와 라틴아메리카의 고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몇 겹으로 에워싸인 금기의 베일을 벗겨내야 하듯, 발렌수엘라는 우리에게 낯익은 구미 중심주의의 문학에 대한 글읽기 전반을 뒤흔든다.

그리고 보니, 이번 ‘인천알라문학포럼’을 계기로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라틴아메리카 역시 오랜 세월 구미 제국의 식민 상태였다. 식민을 벗어났으며 근대 국민국가의 건국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내부의 갈등과 분쟁으로 심한 상처를 입고 있으며, 무엇보다 여전히 그들의 내정에 지속적 간섭을 하는 구미 제국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길은 험난하다. 어떻게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상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더욱 더 이들 세 대륙 지역의 작가들에게 ‘평화적 상상력을 위한 연대’는 절실하다. 이번 ‘인천알라문학포럼’을 통해 작가들은 확인했다. 그리고 한갓 신기루가 아니라, 이러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움직임들이 언젠가 반드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현실적 꿈을 함께 꾸게 됐다. 생각만 해도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특정 국가, 특정 지역, 특정 언어가 정치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채 특정한 삶의 패턴만을 보편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까지 구미적 보편주의가 세계문학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후 이것을 보란 듯이 넘어서는 이른바 지구적 보편주의가

세계문학의 진정한 이념적 기반을 정초할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언젠가 ‘지구적 세계문학’의 참된 가치를 전 세계인이 자연스레 내면화할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인천알라문학포럼’은 문학의 자족성을 넘어 세계의 문명 감각의 전환을 위한 첫 삼을 뜬 것이다. 아직도 해묵은 냉전의 대립이 팽팽한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세계 문명의 낡은 감각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지구적 혁명’이 아니고 무엇인가. 혁명의 불길은 타올랐다!

고명철 — 문학평론가 ·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